

사회

봄철 학교 식중독 비상

일주일새 광주지역 고교 2곳 34명 설사·복통 증세

일주일 새 광주 지역 고등학교 2곳에서 집단 급식을 먹은 학생 수십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여름철 보다 떨어지는 봄철에 식중독이 집중돼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8일 광주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시 남구 인성고·급식실에서 접심과 저녁을 먹은 노모(18·3년)군 등 3학년 학생 17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학생들은 다음날인 7일 낮 12시30분께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6일 접심으로 육개장·계란찜·햄김자볶음밥, 저녁에는 고추장찌개, 닭볶음탕, 콩나물무침 등을

먹었다고 보건소는 전했다.

보건소는 해당 학교서 최근 6일 간의 보존식과 식기류 등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급식 종사원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학생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급식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매점 등에서 간식을 먹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수 있다”며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광주시 남구 대광여고에서 접심 급식을 먹은 1~3학년 학생 17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학생들은 접심 급식으로 합심 밥·샐러드·단무지무침 등을 먹었으며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건소는 대광여고측이 “4명의 학생만 병원에 다녀왔다”고 축소보고해 시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보존식 등을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9일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1회 분만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며, 장시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 서늘한 곳에 음식물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 수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평균 44% 가 4~6월에 발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재 서재필선생 서거 61주년 기념 학술회

2012. 4. 6.

주최: 광주일보사 · (사)승재서재필기념사업회 후원: 국기보훈처·전라남도·보성군



‘송재 서재필 선생 서거 61주기 기념 학술 세미나’가 지난 6일 보성군 문현면 서재필 기념공원 내 계심한 전시관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사)승재서재필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추모식, 학술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보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재필박사 서거 61주년 학술세미나

“실천적 삶으로 민족사 방향 제시

끊임없는 혁신 추구 개혁 사상가”

송재(松齋·1864~1951) 서재필 박사 서거 61주년을 맞아 서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추모식과 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 보성 서재필기념관에서 열렸다.

상하이 일시점부와 서박사의 관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수열 조선대 사회과학 대학장은 ‘상하이 일시점부에 참여한 민족지도자 대부분이 서박사의 독립정신과 개화사상의 수혜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서박사는 국내에서 펼친 강연활동, 독립신문 발간 등 독립사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서재필 선생은 한국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으며, ‘독립협회’를 조직한 민족 지도자다. 한국인 출신 최초 미국 의사, 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광주 남구청, 이달말까지

광주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9일부터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저수지 주변이나 관내 하천을 활용하여 수의 사업 창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시책 등 5개 분야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10일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발표하며,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1명 50만원, 동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 각 20만원, 노련상 3명 각 1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062-650-737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의료분쟁 최소비용으로 90일내 끝낸다

분쟁조정중재원 출범…처리 시간 축소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소 비용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입법 노력 끝에 탄생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나 의료

기관이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양쪽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감정부가 배당된 사건을 조사한 후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넘긴다. 이후 조정부가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종재원은 모든 과정을 90일 이내(연장시 최대 120일)에 진행하고 수수료 역시 저렴하게 산정해(1000만 원 신청에 3만2000원 정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일 때

경우 2만2000원,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이다.

조정 대상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출범하는 4월8일 이후의 사건으로 그 이전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법무부 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과

정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중재원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2-6210-0114)와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사학 자율성 침해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 이사장협의회의 “시교육청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본보 4월 6일자 7면)과 관련, “납득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와 국민권익위

원회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자율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운영과 미흡한 경제장치로 인해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교원 선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해 공개 전형 시 교·공립학교의

교원채용 방식을 준용하고 시험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사립법인협의회는 5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방법 임용지침 중지, 사립교원 명예퇴직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9205호

7

오늘 날씨

해뜰 06시 08분

해진 19시 00분

달출 22시 07분

달진 07시 32분

낮 최고 25도

대체로 맑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10/24℃
목포	맑음	10/21℃
여수	맑음	11/20℃
나주	맑음	8/24℃
완도	맑음	11/23℃
구례	맑음	7/25℃
강진	맑음	9/23℃
해남	맑음	8/23℃
장흥	맑음	8/24℃
순천	맑음	9/24℃
영광	맑음	9/23℃
전도	맑음	9/23℃
전주	맑음	10/23℃
군산	맑음	9/20℃
남원	맑음	7/23℃
흑산도	맑음	10/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1.5m	0.5~1.5m
남해 서부 일비다	남서~서	0.5~1.5m	0.5~1.5m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03:53
남해 동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15:58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씨	12/19	10/15	5/16	6/17	7/19	8/20

“가슴 속 얘기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북부署 ‘폭력학생-경찰가족 모친맞기’ 호응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니 엄마가 생겨 정말 좋아요.”

북부경찰이 맷여준 새엄마들은 결연학생들과 앞으로 매달 1차례씩 영화관람, 문화탐방, 기차 여행 등을 통해 친부모같은 사랑을 나누기로 했다.

또 겸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에게는 학습 및 진학지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북부경찰 서 김영래 강력2팀장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에 굽주려 있는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다”며 “특히 여학생들이 만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소외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5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